

□ 종합의견

MIPCOM 한국공동관 애니메이션 참가기업 평가대상 12곳의 참가 신청서를 7명의 평가위원이 면밀히 검토하였고,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.

콘텐츠 경쟁력, 해외진출 역량, 참가계획 및 목표를 평가하여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했습니다. 프리스쿨 외에 청소년, 성인용 애니메이션 제작, 숏폼, 장편 애니메이션 기획 등 다양한 장르와 티킷의 IP제작이 이뤄지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

이번 공동관참가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.

선정된 기업들이 2026 MIPCOM 한국공동관을 통해 K-애니메이션의 경쟁력과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, 비즈니스 성과와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